

초보 강사/연구자의 불안과 비전공자를 위한 문학(사) 교육

정성훈(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소설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 2년 반이 된 새내기 연구자이자,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문학 교양 과목으로 강의 경험을 시작한 초짜 강사입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초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발제를 하게 되어 긴장이 되는데, 처음 강의를 배정받게 되었을 때도 ‘문학 연구자로서 완성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지?’라는 매우 큰 부담감과 막연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큰 논의를 제시하기보다는 어떻게 ‘교양’ 과목에서 ‘한국문학(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문학/교양) 강의에 주어진 자유와 고민

제가 처음 강의를 맡게 된 수업은, 공학계열 중심 대학의 교양학부에서 개설한 한국문학 과목이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어 자유롭게 강의를 설계할 수 있었는데요, 마음만 먹는다면 제가 전공하는 시기, 작품들로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고 또 주변의 선후배, 동료들도 그런 점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설계하려 하니 현실적인 여건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전공 과목과 취업 준비가 중심인 만큼 학생들이 교양과목에 큰 힘을 쏟기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시간표에 맞춰 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선행 지식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까지 감안하니, 장편소설이나 너무 낮은 과거의 텍스트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과 달리 학생들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듣는 문학 수업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학생들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21세기 한국소설의 이해’와 같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사’를 다루지 않는 교양과목이 있었기에 큰 걱정 없이 서사이론과 현대 한국소설의 주요 주제(성장, 가족, 사랑, 도시, 포스트휴먼)를 중심축으로 주로 2000년대 이후의 소설을 배치하고,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읽고 토론 활동을 통해 스스로 텍스트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어놓자면 끝이 없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문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고전문학이나 시 장르도 함께 다루어야 ‘완전’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수업 형식에 있어서는, “토론은 얼마나 자유롭게 해야 할까? 이론 수업과 토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텍스트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완결된 형태로 제시해야 할까? 특정한 해석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답답해할까, 혹은 오히려 텍스트의 해석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답답해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가지 고민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온전한 체계로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 자신에게도 그러한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고민, 그리고 자율적인 ‘독서 모임’이 아닌 대학의 교양 과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제된(‘표준화된’, 혹은 합의된) 연구 성과나 문학사적 지식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이 결국은 ‘교양에서 문학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공자의 관점, 비전공자의 관점

강의를 시작하고 매주 수업을 준비하는 데만도 분주해서 '전체'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게 되었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고민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부-대학원을 거치며 가지게 된 관점(혹은 이론)과 학생들이 지닌 통념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가령 저는 '한국문학의 정의(범주)'를 다루는 주차에서 김사량의 일본어소설 「빛 속으로」의 번역본을 읽으면서 작중 등장하는 혼혈 인물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혼종성, 이중언어 상황 등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숙지한 뒤에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소설을 독해해서 혼혈 주인공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읽어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식민지기 소설에서 단일민족주의를 근간에 둔 민족주의적 서사를 읽어내고자 하는(혹은 그래야 한다는) '통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독서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문학에 대한 통념'은 어디에서 형성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문학을 '전공'으로 공부했을 때를 떠올리면, 한국문학을 전공으로 공부(연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단 한국문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념이나 인상을 걷어내고, 그것을(시대적으로나, 관점으로거나) 낫선 타자로서 대면한 뒤에 이해해 보고자 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했기에 동시대에 발표된 한국문학의 문제의식과 의미를 설명하는 데도 현재의 소설을 역사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 '전공자'로서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식하지 않았지만 수업에도 그런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강화길의 소설 「음복」에 나타난 가부장제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한국의 역사나 담론 속에서 형성되어 온 특수한 문제임을 인지하게 하고, 「음복」이 지닌 '동시대성'이나 문학사의 다른 텍스트와 구별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같이 언급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학 텍스트를(보편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 구성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 중 하나라고 점차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자로서 체득하고, 또 어쩌면 당연스레 공유(된다고 생각)하는 전제나 이론들, 관점들을 학생들의 상황이나 관심, 이해 정도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작업이 주는 어려움이 큼니다. 학생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상호텍스트성, 페미니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이나 역사적 맥락과 같이 텍스트를 '깊이' 읽기 위한 해석틀을 소개할 때, 가장 공들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왜 이렇게 해서까지(?) 읽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않지만,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를 묻는 일은 곧 학생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한국문학을 어떤 역사적, 계보적 맥락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학사적 관점'을 교양 문학교육에 개입시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전공자를 위한 문학(사?) 교육의 가능성과 내용

현재 저는 교양 문학 강의의 목표를, (문학사의 지식을 얻기보다는) 문학을 감상·향유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접하면서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데 있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현대문학자대회 좌담회 "교양하는 마음과 문학교육"을 통해 교양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커리큘럼과 비교하자면 교양 과목은 '이론'이나 '문학사'보다는 '강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양에서의 '문학사' 교육이란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문학을 ‘낮설게’ 경험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중등교육과의 연계와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중등교육에서 형성되었던 문학사적 인식을 재고하게 하는 것도 교양과목의 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고등학교 『국어』에서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춘향전」과 ‘짜패’처럼 구성되는 현상은 판소리계 소설(형식), 해학과 풍자(내용)라는 문학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문학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협애화될 수밖에 없다”¹⁾는 지적을 염두에 두며, 말하자면 2000년대 이후의 학계에서 이루어진 ‘선형적인 민족문학사’와 거리를 두고자 한 문학사 서술들을 계속 고려하며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전공과목이 아니기에 기존의 ‘선형적’ 문학사로부터 더 자유로운 커리큘럼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겠는데요, 과학소설이나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김초엽의 소설을 읽으며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를 같이 소개한다면 학생들에게 김동인은 「배따라기」나 「감자」의 작가가 아니라 「K박사의 연구」의 작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가진 통념(중등교육을 통해 접해 온 한국문학(사))을 재고하게 하고 동시대의 문학들을 역사화함으로써 문학사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교양 한국문학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때 ‘문학사적 관점’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개별 텍스트가 어떤 계보를 거쳐 생성되었는지, 이 텍스트는 어떤 다른 텍스트들과 같은(또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의식을 그려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을 더 살려서 강의를 구성한다면, ①주제별로 현재와 과거의 텍스트를 엮어 읽는 방식, ②기존에 학생들이 알고 있었을 지식과 배치되는(혹은 중등교육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 고등(대학)교육, 교양과 전공을 가르치는 지점은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은 남습니다. 가령 저는 학생들이 접하는 많은 콘텐츠들이 기본적으로는 서사 장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사 이론도 수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만, ‘이론’은 교양과 전공에서 가르치는 내용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문학이 실현되어 온 양태를 서술해낸 것이 ‘문학사’라고 할 때, 전공과 교양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전공자로서 알아야 할 문학적 지식’과 ‘비전공자가 알면 좋을 문학사 지식’의 경계는 어디에서 설정될까요? 이는 결국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 즉 교양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읽기와 해석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혹은 연구자들이 축적한 문학사의 지식들 혹은 ‘표준화된’ 해석들을 전달해야 할까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가를 문제는 아니겠으나, 질문을 확장하자면 (상대평가 과목의 경우) ‘평가 기준’의 문제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고민을 공유해 봅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딪혀 가면서 조정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오신 선생님들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짜 연구자이자 강사에게 지혜를 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지혜, 「문학사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의 현대소설사 교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5,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20면.